

이민우 “맞으면서 막는 법 배웠다”



“잘했어” 지난 19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0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9대2로 승리한 윌리엄스 감독(왼쪽)이 승리투수 이민우와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KIA-롯데전 6이닝 2실점 시즌 2승 슬라이더·체인지업 등 변화구 위력 인생투로 생애 두번째 퀄리티 스타트 “최소 실점으로 길게 던지겠다”

맞는 법을 배운 이민우가 ‘호랑이 군단’ 마운드 를 막는다.

KIA 타이거즈의 이민우는 지난 19일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경기에서 6이닝 4 피안타 3볼넷 6탈삼진 2실점의 호투로 9-2 경기의 승리투수가 됐다.

이날 나지완의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역대 최다 홈런 타이 기록(207개)이 나오고 황대인과 한승택이 시즌 마수결이포를 터트리면서 타선에 눈길이 쏠렸지만, 이민우가 2실점으로 6회를 버텨주면서 KIA는 기분 좋은 승리로 한 주를 열 수 있었다.

이날 이민우는 프로 데뷔 두 번째 퀄리티 스타트(6이닝 이상 3실점)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 9월 14일 사직 롯데전 이후 두 번째 퀄리티 스타트이자 ‘인생투’로 표현할 수 있었던 피칭이었다.

하지만 이민우는 이날 시즌 들어 가장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설상가상 2회에는 손가락 물집이 터지면서 ‘부상 투혼’까지 했다.

이민우의 승리 소감 역시 “경기 전 컨디션이 좋지 않아 최대한 실점을 적게 하자는 마음으로 편하게 던졌다”였다.

직구가 좋지 않았던 이민우는 변화구로 초반 승부를 했다. 이날 총 83구 피칭을 한 이민우는 33개의 직구만 던졌다. 직구 최고 구속은 147km, 평균은 141km. 28개의 슬라이더(최고 139km)를 던졌고, 올 시즌 새로운 무기로 준비한 체인지업(최고 138km)은 18개를 구사했다. 4개의 커브로 타이밍도 땀었다.

이민우의 직구를 노리던 타자들은 오히려 허를 찔렸다.

이민우는 “직구가 안 좋아서 변화구를 많이 던졌다”며 “직구만 노리는 게 보였다. 변화구 던지다가 직구 던지니까 어려워하는 모습이었던”고 언급했다.

컨디션 난조가 오히려 이민우에게는 호재가 됐다. 앞선 두 차례 등판도 이민우에게 큰 도움이 됐다.

이민우는 지난 7일 키움과의 경기에서 시즌 첫 선발 등판을 소화했다. 이날 이민우는 5.2이닝 4실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8-5 승리에 역할을 했다. 아

쉬웠던 부분은 이날 기록한 실점이 모두 1회에 나왔다는 점이다.

지난 13일 한화를 상대한 두 번째 등판 성적은 5이닝 3실점. 이날 경기가 4-3 승리로 끝나면서 이민우는 시즌 첫승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도 이민우는 2회 2실점을 했고, 5이닝 동안 8개의 피안타를 기록했다.

이민우는 “앞선 등판에서 초반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 많이 했다. 서재응 코치님도 1회 첫 타자를 신경 쓰라고 하셨다. 초반에 무너지니까 그것만 잘 버티자는 생각으로 했다”며 “지난 한화전이 많은 경험에 됐다. 이날 안타를 많이 맞았는데 어찌 됐든 5회까지 버텼다. 코치님이 그러면서 실력이 느는 거라고 하셨다. 아예 두만루 때 맞더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던졌다”고 언급했다.

맞으면서 막는 법을 배우고 있는 이민우는 ‘볼넷’과 ‘싸움’에서 선발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이민우는 “밸런스가 안 좋아져서 고민이다. 구속이 좋을 때는 확실히 잘 나오는데, 아닐 때는 구속이 떨어지는 게 느껴진다. 이 부분을 신경 써야 할 것 같다”며 “마운드에서 선발로 버텨줘야 한다. 볼넷만 주고 하는 게 가장 큰 목표다. 볼넷을 최소화하고 최소 실점으로 많은 이닝을 버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

타이거즈 홈런기록 타이 나지완 “가문의 영광” 황대인 홈런 비결 “흰 것 보이면 치라더라고요”

덕아웃 T 특목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KIA 거포 나지완이 타이거즈 홈런 역사를 새로 쓴다. 나지완은 19일 롯데전에서 선제 스리런으로 시즌 3번째이자, 통산 207번째 홈런을 기록했다. 이 홈런으로 김성한의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역대 최다 홈런과 타이 기록한 나지완은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다. 기록 깨고 싶었는데 타이 기록을 만들어서 기분 좋다. 꿈꿔왔던 타이거즈 선수로, 기억에 남을 선수가 된다는 게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내가 200홈런 전 걸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다. ‘애중의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타이거즈 선수로 우여곡절이 많다. 팀이 16연패 할 때도 그 자리를 지켰고, 두 번의 우승 현장에도 있었다. 타이거즈 선수로 이렇게 기록에 남겨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나름 잘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계속 그렇게 믿으면 좋겠다 = 나지완은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최다 홈런 타이 기록을 달성한 뒤 진행된 인터뷰에서 “선입견을 깨려고 노력하다 보니 안정감을 보여주는 것 같다. 주변에서 ‘공이 너한테 가도 불안하지 않다. 요즘에는 외야에서 제일(수비) 잘한다’고 격려도 해준다. 매일 수비 나가면서 초조함도 없어지고 재미있게 하고 있다”고 수비에 관해 이야기를 했다. 현재 가장 수비가 좋은 외야수라는 나지완의 자평. 20일 롯데전에 앞서 나지완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윌리엄스 감독은 “계속 그렇게 믿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람들을 웃겼다. 이어 “스프링캠프부터 열심히 연습했고 매일 피고도 받고 타구판단 훈련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좋은 평가를 했다. /김여울 기자 wool@

▲그때는 뛰어가겠다 = 눈길을 끈 윌리엄스 감독의 등장. 19일, KIA의 5회초 수비가 진행되던 1사 2루에서 윌리엄스 감독이 그라운드로 향했다. 윌리엄스 감독이 향한 곳은 마운드가 아닌 유격수 자리였다. 앞선 4회말 우전 안타로 출루한 유격수 박찬호가 도루를 시도한 뒤 우측 허벅지 통증을 호소했다. 이어진 수비에서 박찬호의 움직임이 이상하자 윌리엄스 감독은 즉각 그라운드로 나섰다. KBO리그에서는 흔치 않은 장면에 대해 윌리엄스 감독은 “미국에서는 감독이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본능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다”며 “가문의 진실을 말하는지 알기 위해 선수들 눈을 보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박찬호가) 장난도 많이 치고 헛갈리게 하기 때문에 요주의 인물로 보고 있다”고 웃었다. 경기 육상에 부상을 숨기고 있다고 판단한 윌리엄스 감독은 직접 그라운드로 나가 박찬호의 상태를 확인했다. 감독의 등장에 뒷걸음질 치면서 “괜찮다”고 거짓말(?)을 한 박찬호는 결국 5회 수비가 끝난 뒤 김규성으로 교체됐다. 윌리엄스 감독은 “(외야수 부상 상황에서는) 그때는 달려가서 확인하겠다”고 말해 사람들을 웃겼다.

▲흰 것 보이면 치라더라고요 = 황대인의 홈런 비결에는 특별한 ‘전력 분석’이 있었다. 지난 16일 1군에 콜업된 황대인은 17일 첫 타석에서 2루타를 기록했고, 첫 선발 출장 경기였던 19일에는 첫 타석에서 홈런포를 날렸다. 경기 전 “장타를 기대하고 있다”는 윌리엄스 감독의 기대에 바로 응답한 황대인은 “사실 긴장을 많이 했다. 직구를 노리고 있었다. 바깥쪽을 노렸는데 몸쪽으로 들어와 나도 모르게 스윙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황대인은 “전력 분석 시간에 선배들이 흰 것이 보이면 치라더라고 이야기하더라”며 웃었다. /김여울 기자 wool@

‘리얼돌 논란’ FC 서울, 제재금 1억 중징계

성인용품 관중석 배치 물의... 업체 통화한 연맹 직원은 감봉 3개월

‘리얼돌’을 관중석에 비치해 물의를 일으킨 FC 서울이 제재금 1억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0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17일 열린 광주FC와의 홈경기에서 성인용품 ‘리얼돌’을 관중석에 비치하며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 FC서울을 구단에 제재금 1억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지난 2016년 삼판 매수로 전복 현다가 승점 9점 삭감에 벌금 1억원 처분을 받은 이후 역대 최고액이다.

상벌위원회는 FC서울이 고의로 리얼돌을 비치한 것이 아니고 이를 제공한 업체와 대가관계를 맺지도 않았지만 ▲실무자들이 업체와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네킹이라고 소개받은 물건이 사실은 ‘리얼돌’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 ▲마네킹 중 대다수가 여성을 형상화한 것이었고 외양도 특이해 상식과 일반적인 마네킹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경기 당일에도 오후 12시경부터 설치가 완료돼 오후 7시 경기가 시작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해 사전에 철거하지 않았던 점 등 업무 처리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미 지난해부터 ‘리얼돌’이 성적 수치심

을 유발하고, 성상풍화의 매개체가 되고 있으며, 여성을 도구화해 인간의 존엄성을 해한다는 등 많은 비판과 국민적 우려가 있었던 상황이었던 만큼 구단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경기장에 전시한 것은 K리그 구단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보았다.

상벌위원회는 FC서울이 K리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다고 판단,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기준 제10조에 따라 징계를 부과했다.

특히 상벌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K리그에 많은 성원을 보내준 여성팬들과 가족 단위의 팬들에게 큰 모욕감과 상처를 주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향후 유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무거운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맹은 같은 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처음 해당 업체의 연락을 받은 연맹 직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직원은 해당 업체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구단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FC서울에 연락처를 전달했고, 연맹 인사위원회는 이를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나, 왔소”

토트넘 SNS에 복귀 신고



‘손세이셔널’ 손흥민(토트넘)이 깜찍한 ‘V’ 손짓으로 팀 복귀를 신고했다.

토트넘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손흥민의 사진을 올리면서 “누가 돌아왔는지 보세요(Look who's back!)”이라는 글을 남겼다. SNS에는 손흥민이 토트넘 훈련장 그라운드에 누워 왼손으로 ‘V’를 그리며 환하게 웃고 있는 장면이 실렸다.

2018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 병역특례 대상이 된 손흥민은 지난달 20일 제주도 해병대 훈련소에 입소해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다. /연합뉴스

전남드래곤즈 시즌 첫 승 주역

김주원·박준혁 K리그2 베스트 11

전남드래곤즈의 2020시즌 첫승을 이끈 수비수 김주원과 골키퍼 박준혁이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일 K리그2 2라운드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두 경기 연속 골을 넣은 대전시 티즌의 안드레다가 K리그2 MVP에 선정됐고, 전남 김주원과 박준혁도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김주원은 지난 16일 광양정용구장에서 열린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홈 개막전 후반 14분 프리킥 상황에서 임창균의 프리킥을 헤더로 연결, 1-0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골키퍼 박준혁도 제주의 막판 공세를



잘 막고 팀 승리를 지키면서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한편 개막 후 1승 1무를 거둔 전남은 오는 24일 오후 6시 30분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서울이랜드를 상대로 연습에 도전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